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회장 글로벌 CEO 평가 20위

美 하버드비즈니스리뷰 'CEO 경영 평가'

서경배(사진)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글로벌 CEO 평가에서 20위에 선정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대표이사 회장이 미국 하버드대가 발간하는 세계적인 경영저널 하버드비즈니스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와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7년 글로벌 CEO 경영평가(The Best-Performing CEOs in the World 2017)에서 세계 20위, 아시아 2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7년 4월까지의 CEO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올해 1위는 패션브랜드 '자라'를 운영하는 스페인 인디텍스 그룹의 파블로 이슬라, 2위는 영국의 광고그룹 WPP의 마틴 소렐, 3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NVIDIA의 켄스 황이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기업 경영자로서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20위로, 일본 헬스케어 기업 시스멕스의 이예츠크 히사시 이 18위로 함께 아시아 2대 CEO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서경배 회장은 화장품 업계 내에



서도 주요 글로벌 기업의 CEO보다 높은 순위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또 한국인 경영자로서는 2013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3위), 정몽구 현대차회장(6위) 이후 4년 만에 서경배 회장이 순위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초록우산 광주본부 '33번째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지난 24일 광주후원회(회장 송화태)와 함께 주관해 '제33회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

1985년 첫 후원자와 아동을 위한 만남의 날 행사로 시작해 올해 33회째로, 이날 50여명의 아동들과 후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전 후원자와 아동들은 '날아라, 나의 꿈'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신의 꿈이 적힌 드론을 함께 만들며 서로의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추억을 만들었다.

이어 어린이재단 서구원회 김수관 회장(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이 1억원 이상 후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린노블 클럽'에 위촉되기도 했다.

송화태 후원회장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는 것처럼 후원자와 아동이 서로 빛이 돼주면서 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후원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별처럼 반짝일 수 있도록 어린이재단을 통한 따뜻한 손길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美 ADGC, 치매 조기 예측진단 공동연구

치매 조기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미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에 나선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단장 이진호·이하 연구단)은 24일 미국의 알츠하이머 전문 연구기관인 '미국 알츠하이머병 유전학 컨소시엄'(ADG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구단은 ADGC가 확보한 3만여 명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연구단이 개발한 치매 예측기술의 타당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연구단이 확보한 알츠하이머병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토대로 개발된 유전자 변이 분석기술에 대해 미국 ADGC측이 관심을 보이면서 추진됐다.

협약을 위해 ADGC 연구책임자 중 한 명인 린지 패럴(Lindsay Farrer) 보스턴의대 교수가 지난 23일 한국을 방문했다. 패럴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유전학 분



자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현재 보스턴 대학 의과대학 의생명유전학과 석좌교수 겸 학과장을 맡고 있다.

최근 조선대 연구단은 4년여의 연구 끝에 65세 이상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정밀 분석한 뇌지도도를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년 초 상용화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진호 치매국책연구단장은 "올해 세계 치매 의료시장의 총비용이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치매 예측 진단 프로그램을 국제특허 출원하고 의료기술 수출을 위해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 ▲신항락(前광주일보 주필)·김선희씨 차남 장호근 하이철화·박금자씨 장녀 혜선양=28일(일) 12시30분 서울 청담동 더청담 5층 그린테라스(더돔).
- ▲클라우드 필립·실비안느 필립씨 아들 다미양 필립(피아니스트)군 송계성·최형련씨 딸 이은(피아니스트)양=28일(토) 오후 5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 ▲형시영(광주남부경찰서 상황팀장)·하영남씨 아들 을욱군 전영택·박선실씨 딸 수경양=28일(토) 12시40분 라세스 타워딩을 2층 열무채움.
- ▲서승욱·신영란씨 아들 영석군 이석열(광주여상고)·김순애 씨 딸 훈영양=29일(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 2층 마제스틱볼룸. 피로연 21일(토) 오후 5시 상무지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
- ▲안인섭(VIP장래타운 사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김미자씨 장남 기용군 고 박창국·허현순씨 장녀 은주양=29일(일) 오후 1시 S타워웨딩을 3층 메리

골드홀

- ▲김성원(가수)씨 차남 정재현군 박용호·고민자씨 장녀 슬기양=29일(일) 오후 1시40분 상무리츠웨딩을 2층 자스민홀.
 - ▲이형열·한해숙 씨 장남 중화군 김춘원·김미자씨 딸 효선 양=11월 4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아컨벤션웨딩 아모르홀. 신부 피로연 10월 27일(금) 오후 5시30분 광주 알펜시아웨딩컨벤션 3층.
- 중친회**
- ▲동래정씨 광주전남 중친회=중시조 직제학공 13세 알현 순례 26일(목)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농성동 상록회관 앞 오전 7시 출발 010-3609-2523.
 - ▲해남윤씨 광주중친회 95회 정기총회 및 친목회=28일(토) 오전 10시. 노대동 노인복지타운 010-9766-7948.
- 향우회**
- ▲제10회 재광 고흥인 화합한마당축제=28일(토) 오전 광주시 광산구 첨단근린

공원 운동장, 문의 사무총장 신성호 010-3607-2118.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

“장애인에 영어 자신감 키워주고 싶어”

광주 열린케어장애인센터 영어 공부방 봉사 김건 씨

“이곳 장애인센터에 있는 분들이 습득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배우려는 자세는 적극적이예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가는 것이 목표인데,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학 경험을 살려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영어회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 화제다.

광주 남구 열린케어장애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김건 씨(26). 그는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2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과 3학년을 마친 재원이다. 한때는 영주권을 얻어 그곳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먼저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당시 그는 유학 전에 신검을 받았고, 중학교 때 무릎을 다친 탓에 복무요원 편정을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16년 입국해 열린케어장애인센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속받았다”며 “복무한지 얼마 안 돼, 소장님이 영어 회화 공부방을 개설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 경험을 살려 소외된 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애인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주고, 해외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장애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도 소개해주고 싶었구요.”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접해 보지 않아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는 그는 지금은 스텝업이 어울리게 됐다고



광주 남구 열린케어장애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김건 씨가 장애인들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美 UC버클리대 3년 마치고 휴학

유학경험 살려 주 2회 가르쳐

학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UN 등 국제기구서 일하는 게 꿈

한다.

“처음에는 친근감을 갖는 게 중요했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 미국 경험을 틈틈이 들려줬습니다.”

김 씨가 고등학교(광주 문성고)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중앙대 국제학부를 한 학기 다녀왔지만 생각만큼 대학생활이 흥미롭지 않았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당시 대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컸죠. 자퇴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 입시를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대학에 합격했고 3학년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현재 그는 영어 공부방 외에도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각급 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방학 때는 장애인 청소년 캠프에 참가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봉사활동과 유학 경험을 살려 향후 IMF나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다.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와 한국은행이나 KDI 같은 곳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김 씨는 내년 1월이면 소집해제가 된다. 봄 학기에 복학을 해 남은 학업을 마친 후에는 또다른 도전을 할 생각이다. 무슨 일을 하든 지금의 재능기부와 봉사는 밑거름이 될 것 같다.

“미국 유학 중에 광주 출신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영남지역 학생들은 많이 봤는데 말이죠. 물론 지역 연수를 오는 경우는 몇 있었어요. 지역 후배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눈을 세계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신명근 교수(진단검사의학과)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58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교수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600만원 전액을 '전남대학교 사랑 릴레이'에 기부



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가 황석영 딸 여정씨 소설가 등단

작가 황석영(74)의 딸 여정(43·사진)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설가로 등단했다. 문학동네는 제23회 문학동네소설상 심사 결과 황여정씨의 경장편 '알제리의 유령들'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문학을 전공한 황여정씨는 오랫동안 소설가의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 홍희담(72)씨 역시 광주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소설 '깃발' 등을 쓴 소설가다. 현재 황 씨는 김영사에서 편집



자로 근무하고 있다. 황 씨는 “어릴 때부터 소설과 워낙 가까이 온 환경 탓에 소설을 썼지만 막상 소설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며 “수없이 많이 공모전에 도전해서 해봐도 생각이 안 날 정도”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사

- ◆광주시 북구
 - 5급 <전보> ▲임동범 건축과장 ▲최해중 공동주택과장 ▲윤순환 도시정비과장 ▲공용 두압3동장 직무대리
 - 6급 <승진> ▲윤철연 회계과
 - 6급 <전보> ▲구영찬 공원녹지과 산림담당 ▲김미정 토지정보과 지적담당 ▲김정훈 토지정보과 지적조사담당
- ◆목포해양대
 - ▲일남대학원장·해양산업대학원장·부설 평생교육원장 장용재 ▲해사대학장 박찬수 ▲해양공과대학장 최의창 ▲교무처장 정대득 ▲도서관장 김갑기 ▲정보통신원장 이광운 ▲사감장 오대균 ▲마린시물레이선센터장 김철승 ▲해양레포츠센터장 배철오 ▲기계전자기술연구소장 조대환 ▲인문사 주간 김용진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민준기 남(남/90) 子/子婦 : 민경서/이연애, 경택/노필란 女/婿 : 민정숙/우재량, 정남/홍성우, 선희/남상복 喪主 : 이두원, 경선/이상중, 종숙/문진환 * 발 인 : 10월 26일 * 장 지 : 화순 이양선영 *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이완수 남(남/62세) 子/子婦 : 이민우/김은경, 현우/문정진 喪主 : 장단순 * 발 인 : 10월 27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노영심 남(남/49세) 子 : 김경기, 명은 女 : 김탁수 * 발 인 : 10월 2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주철환 남(남/61세) 子/子婦 : 주진수/이영미, 동수 喪主 : 남희숙 * 발 인 : 10월 26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함께함10년.함께할100년
금호생명 062-227-4000
www.mykumho.com